



은행 (Positive)

12월 여수신: 통계 집계 이래 최저 대출성장률로 마감

▶ Analyst 김도하 doha.kim@hanwha.com 3772-7479

예금은행 12월 여신 동향

- 12월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2,537조원(+3% YoY)으로 월 중 10조원 감소, 연 중 81조원 증가하며 마감
- 기업 대출(그림3):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이하 YoY)은 10개월째 0%대에서 횡보. 법인 중소기업 대출의 연간 증가율은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에서 마감. 대기업 대출은 연말 순감소가 평년에 비해 적게 나타나면서 증가율이 소폭 상승함
- 가계 대출(그림2): 주택대출은 월 중 0.5조원 감소. 지난 10년간 주택대출이 월 순감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모기지의 순증이 대폭 축소된 것뿐 아니라, 전세 수요 감소로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연말에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냄. 신용을 포함한 일반대출도 1.5조원 감소하면서 전년 말 수준의 잔액으로 마감함

예금은행 12월 수신 동향

- 12월 예금은행 총수신은 2,535조원으로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하며 4% YoY 증가. 수신 증가율은 2024년 6월부터 1년 이상 대출 증가율을 하회했다가 최근 6개월 연속으로 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있음
- 저원가성 수신은 7% YoY 증가. 수신 내에서의 비중이 전년 동월 대비 확대되는 추이가 8개월 연속 나타남
- 정기예금은 2% YoY 증가에 그쳐 근 51개월래 최저 증가율을 기록. 연말 정기예금이 감소하는 계절성이 있으나 이를 감안해도 순감폭이 컸던 것으로 보임
- 2025년 은행업종의 대출증가율은 3.3%로, 연간 수치로는 통계 집계 이래(2000년~) 최저치를 기록. 저성장은 가계와 기업에서 공히 나타났는데, 가계부채 규제 강화와 은행들의 성장 니즈 저하가 동반된 결과라고 판단
- 수신에서는 연중 저원가 조달의 비중이 확대 전환된 점이 긍정적. 증권사의 IMA 출시, 증시로의 자금 이동 수요, 정기예금 감소 등을 근거로 은행 조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1)여신 성장이 낮았던 만큼 조달 니즈 또한 낮은 구간이었던 점, (2)최근 업종의 수신 증가율은 오히려 여신 증가율을 상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아직은 기우라고 판단됨. 다만 2026년에는 생산적 금융을 집행하기 위한 조달이 요구될 것이므로, 수신금리에 부여되는 spread를 통해 조달환경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을 것

[표1] 2025년 12월 예금은행 여수신 동향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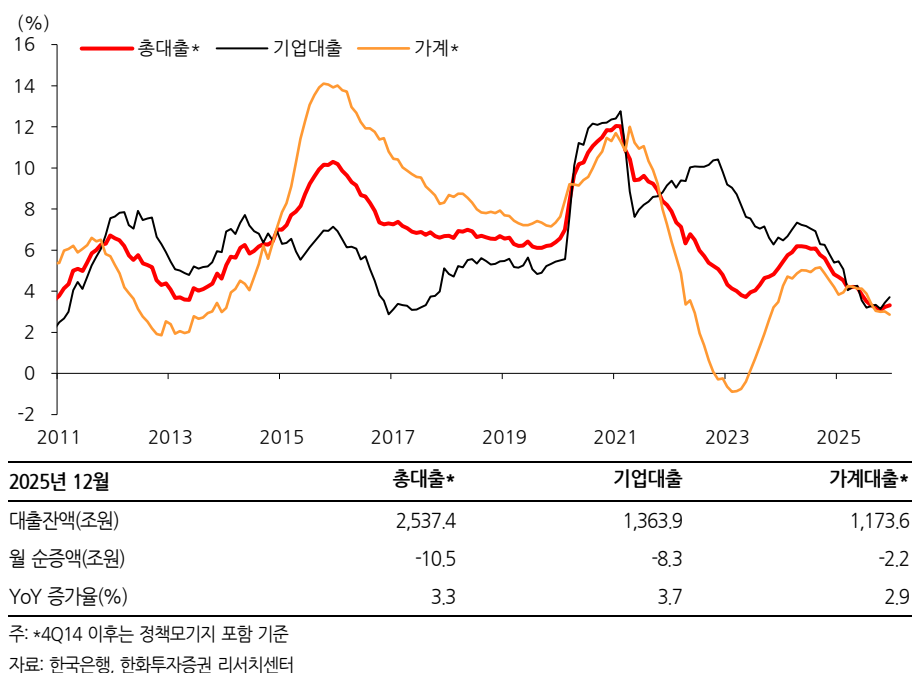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총대출*	기업대출			가계대출*		
				대기업	법인중기	자영업자		주택대출*
여신	월말 잔액	2,537.4	1,363.9	294.9	610.7	458.3	1,173.6	935.0
	월 순증액	-10.5	-8.3	-2.0	-5.0	-1.3	-2.2	-0.7
	YoY 증가율	3.3	3.7	7.4	4.4	0.6	2.9	3.6
		총수신	저원가성	정기예금		은행채	CD, RP, 표지어음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수신	월말 잔액	2,534.7	994.9	334.4	660.5	1,061.5	341.1	66.0
	월 순증액	7.7	39.3	8.7	30.6	-31.9	-1.4	2.4
	YoY 증가율	4.1	6.7	7.6	6.2	2.0	2.5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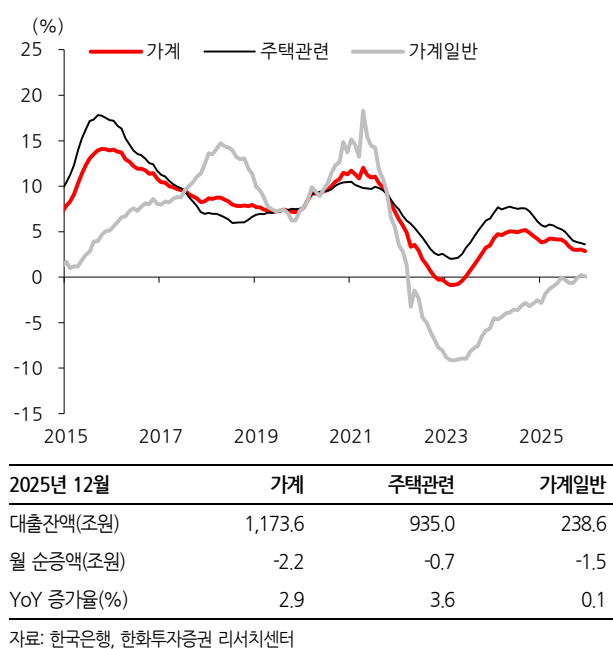
주: *정책모기지 포함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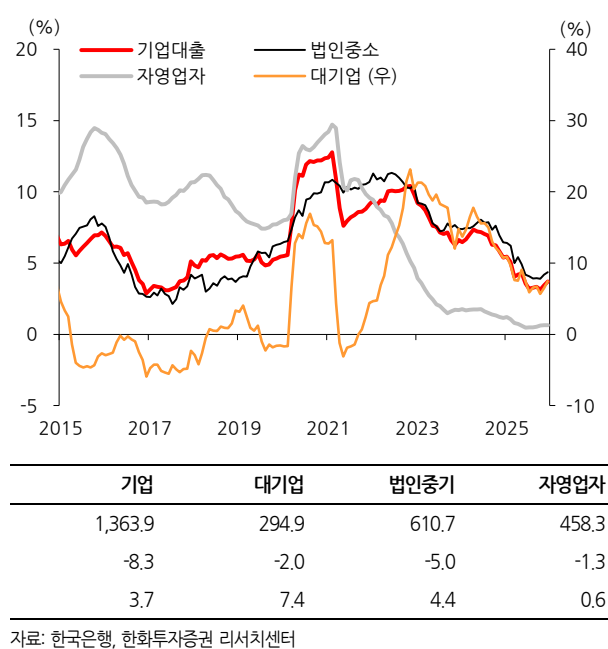
[그림1] 예금은행 차주별 대출성장률(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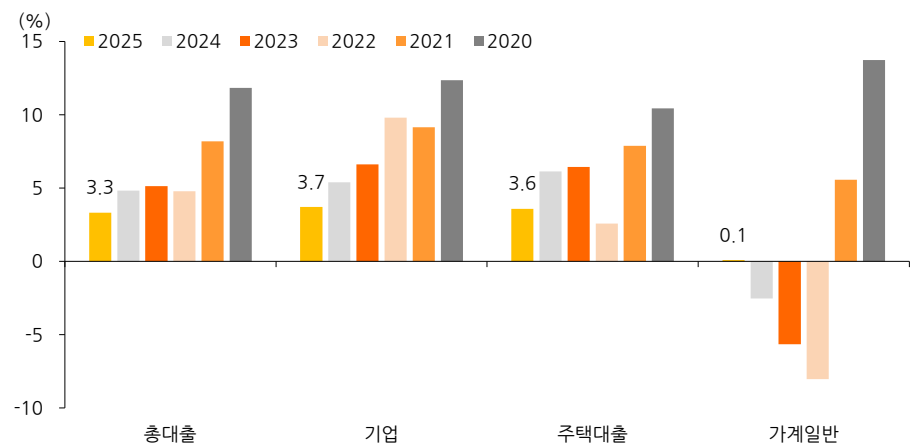
[그림2] 예금은행 차주별 대출성장률(YoY) 추이



[그림3] 예금은행 차주별 대출성장률(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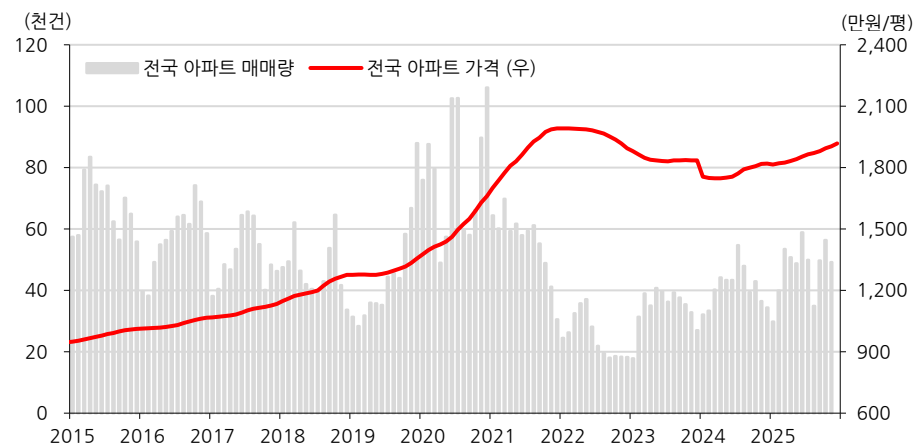


[그림4] 연도 말 대출 잔액의 YTD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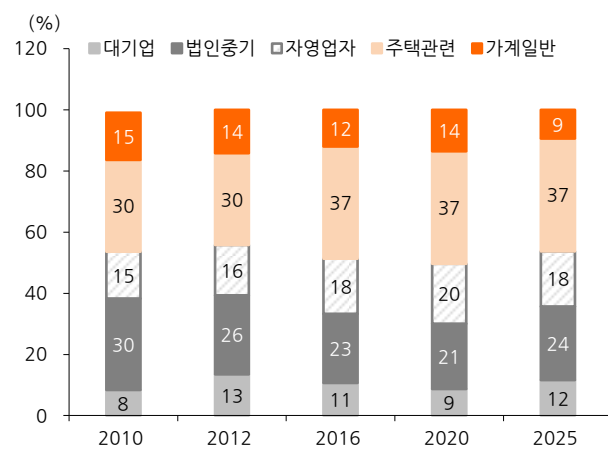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및 가격지수



자료: 부동산114,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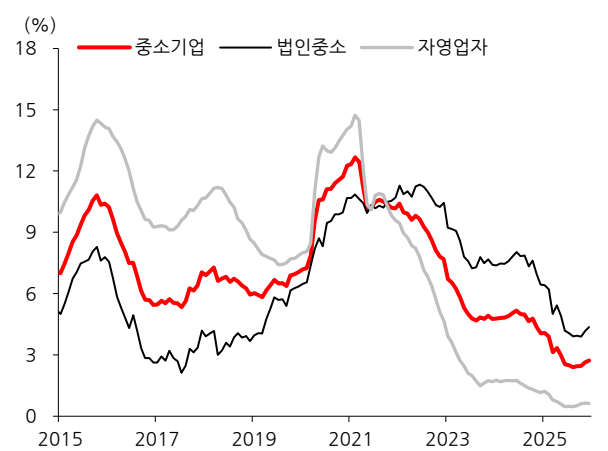
[그림6] 예금은행 차주별 원화대출금 구성비 변화



주: 정책모기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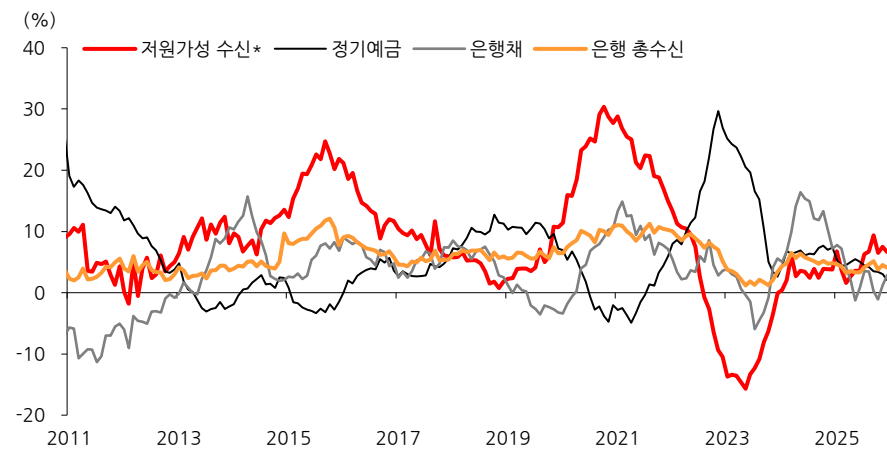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중소기업(법인+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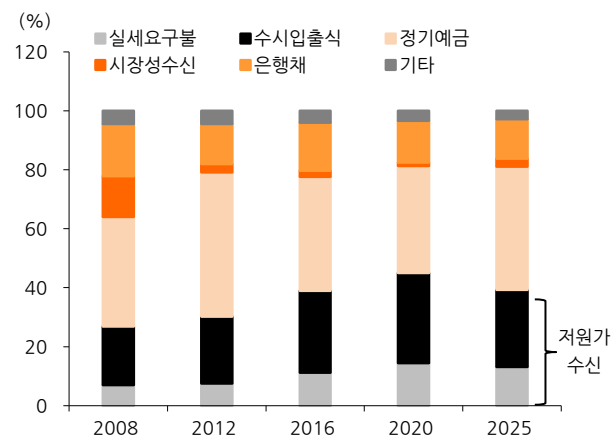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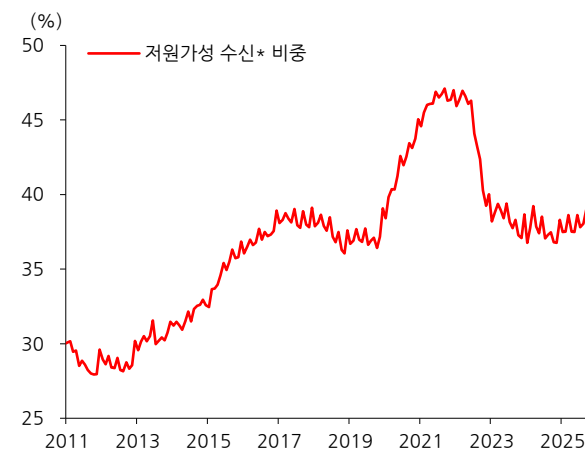
[그림8] 은행 수신종별 증가율 추이



[그림9] 은행 수신종별 구성비 변화



[그림10] 은행 수신 중 저원가성 비중 추이



[Compliance Notice]

(공표일: 2026년 1월 15일)

이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였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과 관련해 공표일 현재 관련 법규상 알려야 할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도하)
저희 회사는 공표일 현재 이 자료에서 다룬 종목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종목 투자등급]

당사는 개별 종목에 대해 향후 1년간 +15% 이상의 절대수익률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 Buy(매수)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절대수익률 -15~+15%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Hold(보유) 의견을, -15% 이하가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Sell(매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밸류에이션 방법 등 절대수익률 산정은 개별 종목을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에 따르며, 목표주가 산정이나 투자의견 변경 주기는 종목별로 다릅니다.

[산업 투자의견]

당사는 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해당 업종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Positive(긍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과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utral(중립적) 의견을, 과거 수익률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Negative(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수익률 전망은 해당 산업 내 분석대상 종목들에 대한 담당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판단에 따릅니다.

[당사 조사분석자료의 투자등급 부여 비중]

(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투자등급	매수	중립	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87.0%	13.0%	0.0%	100.0%